

#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中企·건설업계 “통탄·비참”

### “83만 넘는 종사자 형사처벌로 폐업 공포” 토로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법안 조속 처리 촉구

중소기업·건설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유예 법안 무산에 대해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건설업계 협·단체 일동은 지난 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1월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

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만2천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해왔다”며 “그러나 2월1일에 이어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결국 83만명이 넘는 이들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또한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다”며 “이미 1천222개의 산업 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

을 의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강도 높은 처벌 내용을 담는다.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2년 뒤인 올해 지난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 한 달을 넘긴 사이 10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유예안 처리가 무산 될 경우 “헌법소원 심판에 나서겠다”고 밝혀 이번 불발로 업계의 추가 단체 행동이나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갈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은슬기자



창립 27주년 단독 슈퍼세일 홀플러스가 창립 27주년을 맞아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3월 한 달간 ‘홀플러스’, ‘멤버특가위크’ 등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친다. 사진은 ‘홀플러스’ 행사상품을 소개하는 모습. <홀플러스 제공>

## 광주·전남 中企경기전망 5개월 만에 ‘껍충’

### 3월 SBHI 85.8 전월比 9.6p ↑ ...신학기 등 내수 개선 심리 반영

지속적인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5개월 만에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개선된 동향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분부는 3일 “3월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 : Small Business Health Index, 중소기업건강도지수)가 85.8로 집계, 전월(76.2) 대비 9.6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광주·전남 SBHI는 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13-19일 광주·전남 중소기업 215개사를 대상으로 실

시했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70.1) 대비 9.5p 상승한 79.6로, 전남은 전월(82.1) 대비 9.4p 증가한 91.5로 각각 전망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분부는 “지속적인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신학기 특수 등 내수 경기 반등에 대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90.0로 전월(77.4) 대비 12.6p, 비제조업 81.0로 전월(74.7) 대비 6.3p 각각 상승했다. 항목별 전망으로는 내수판매(73.3→

84.7), 경상이익(70.2→80.2), 수출(82.3→89.7), 자금사정(70.9→77.2) 모두 상승했고,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91.8→92.1)은 소폭 하락했다. 이달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주된 경영여론은 인건비 상승(58.1%)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내수부진(47.4%), 고금리(33.5%)가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광주·전남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률(보유 생산설비의 월간 생산 능력대비 해당 월의 평균 생산량 비율)은 73%로 전월(71.9%) 대비 1.1%p 상승했다. 광주는 72.3%로 전월(71.6%) 대비 0.7%p, 전남은 73.7%로 전월(72.3%) 대비 1.4%p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슬기자

## 남양건설 사원능력평가 ‘공정·투명 인사시스템’ 주목

### 차장급 이하 132명 참여 시험점수 인사종합평점 반영

호남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양건설(주)(회장 마형렬)이 공정한 인사평가를 통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여 년 간 ‘사원능력평가시험’을 실시하면서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보해 주목 받고 있다. 남양건설(주)은 지난 2-3일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차장급 이하 132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도 사원능력평가시험을 실시했다. 시험은 직종·직급별로 구분 지어 소양실무와 건축·토목·관리 등 전공 분야 2과목으로 치러졌다. 부장급은 연구리포트 평가제도로 대체 반영했다. 주제는 업무개선, 원가절감 등 분야별로 자유 선정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블라인드로 평가했다. 남양건설 관계자는 “사원능력평가



남양건설(주)은 지난 2-3일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차장급 이하 132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도 사원능력평가시험을 실시했다.

시험은 공정한 인사평가를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되며, 현장·직무능력을 갖춘 남양인으로 자질을 향상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며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서 충분한 실무역량을 배양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 ‘좀비기업’ 상폐절차 단축

### 코스피 4년→2년·코스닥 3심→2심제

금융당국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제성이나 패널티가 없다는 점을 지적받아 온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는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코스

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한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규정은 상장사에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이나 횡령 및 배임·영업정지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열게 돼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 절약 및 청정문화 확산 캠페인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3년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20℃ 유지하기
- 1월 폭팍이, 커튼으로 틈새 열 손실 줄이기
- 4월 내복, 무릎담요 등 온(溫)맵시 실천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가득한**

# 무안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무안군

문의 : 062)650-2099